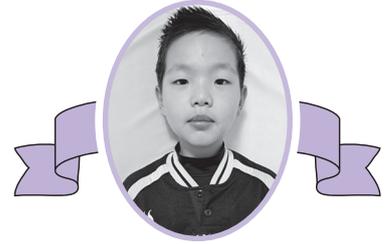


동상





아빠의 고향은 남해 상주리입니다.



류재진 | 창원 사파초등학교 4학년

저희 아빠의 고향은 우리나라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남해 상주리입니다. 아빠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증조할머니 손에 맡겨지면서 갯난쟁이부터 남해 ‘상주리’에서 자랐습니다.

아빠가 대학을 진학하여 남해를 떠나 창원에 정착하였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는 창원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창원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빠가 남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회사일이 힘들거나 얼큰하게 약주를 하시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 속 배경은 늘 ‘남해 상주리’가 되지요. 아빠의 어린 시절은 때로는 힘든 몸의 쉼터가 되고 때로는 쓴 술의 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증조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남해를 자주 갔지만 돌아가신 후로는 일 년에 3번 정도 갑니다. 오늘은 추석 전 별초를 하기 위해 남해에 가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엄마는 채비를 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아빠의 얼굴은

주름이 조금 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마치 내가 소풍가는 날처럼 들뜬 모습입니다. 남해로 향하는 차 안의 시간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처럼 지루합니다. 남해에 다다를 때쯤이면 아빠는 자동차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여십니다. “애들아~ 공기가 다르지?” “음~ 바다냄새~” 동생과 나는 코를 벌름거리며 시늉을 하며 차창 너머로 손을 살짝 내밀어 바람을 쓸어봅니다. 소금을 잔뜩 머금은 바다 향기와 손끝을 쓰다듬는 보드라운 바람, 드넓은 하늘과 고운 푸른빛 바다가 친구가 되어 파란 세상을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해 상주 바닷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잦지 않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며, 반짝이는 모래빛으로 우리를 반깁니다. 나는 저 멀리 흘러가는 파도 속에 코로나19가 쓸려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생과 나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고운 모래 속에 손과 발을 맡겼습니다. 마치 모래가 간질이는 것 같아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커다란 돌 틈 사이로 이리저리 헤엄치는 새끼물고기와 숨바꼭질하듯 재빨리 몸을 숨기는 아기 게들, 다닥다닥 바위에 붙어 슬금슬금 엄마를 찾는 소라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 꼬마의 신나는 웃음소리까지 온라인 수업 같았던 차 안 시간들은 금세 까맣게 잊었습니다. 남해가 왜 보물섬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자 우리 가족은 해변 캠핑장에 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것입니다. 텐트 속에서 본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불꽃놀이를 하듯 반짝였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코를 골며 잠이 드셨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게만 들리던 아빠의 코골이가 철썩이는 파도에 묻혀 저 멀리 흘러갑니다. 나는 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빠의 고향 남해 상주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고향은 남해 상주리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